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8주일 · 목주기도 성월
제33권 46호(다해) 2013.10.13

[묵상]



나병환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사마리아와 갈릴래아 사이를 지나시던 예수님
열 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중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
하느님을 찬양하며 감사들 드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감사들 드린 이 외국인만이
구원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열 명의 나병환자 중 구원을 얻은 이는 한 명 뿐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병이 낫는데 있지 않고
하느님을 알아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하느님의 작용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것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삶, 그것이 믿음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머지 아홉은 왜 그랬을까?
그저 사제를 찾아가서 보이라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가 있나 했을까!
특별한 말씀이나 행위로 고치셨다면
예수님께서 베푸셨음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었을까.
일상 속에 배여 있는 하느님의 작용을 깨닫지 못하고
하느님의 작용을 자기의 능력으로 여기는
저희들을 위한 호통이 아니실까.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베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최근석 마리아, 유승례 아가다, 이영재 마리아, 홍찬기 대건안드레아 & 심재순 (생)박지영 레지나 & 김윤중 유스티노, 김병조 마틴&박지연 요안나 가정, 오창근 베드로사제
주 일 낮 미사	(연)이명자 로사, 이용식 베드로, 이경용 야고보, 유정복 베네딕타, 전시웅 요한, 고준희 제임스, 변세연 대건안드레아, 김중환 야고보, 김영수 테레사, 김형태 야고보, 정학순 발바라, 장석천 요셉, 고종옥 모니카, 오창규, 이덕철 루카 (생)이윤조 클라라, 변혜경 올리안나, 오태환 바오로 & 윤희 클로리아 & 세종 케빈&에슬 케일라 이정현 & 이경수 헬레나 가정, 고정민, 이재숙 테레사, 정진확 & 정은경 & 정진세, 박소영 프란체스카 가정, 김영길 안드레아 & 김복희 로사리아, 조은하 올리안나, 오창에 안나, 하늘의 문pr.,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열왕기 하권(2 Kings) 5,14-17

화답송 ○주님은 당신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 -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노래 불러라.○

제 2독서 티모테오 2서(2 Timothy) 2,8-13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복 음 루카(Luke) 17,11-19

영성체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240	188	239
봉헌	255	257	265
성체	In the Breaking of the Bread	306	299
파견	382	211	271

올바른 성모신심

제2장 성모 마리아에 관한 교의

1)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이와 같은 선언으로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
람들, 곧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되는 사람들에게 성모 마리
아께서는 어머니가 되신다.(요한 19,27 참조). 복음에 근거
해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공경하는 것은 교부 시대에도 계
속된다. 사도 교부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Ignatius) 성인
은 성서 시대 이후 처음으로 마리아의 신적 모성과 동정을
언급하였다. “이 세상의 지배자들에게는 동정 마리아, 그분
에게서 주님의 출생은 주님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감추어져
있었다.”(에페소인들에게 보낸 서간) 유스티노(Justinus)
성인에 따르면 “마리아께서는 동정녀로서 주님의 성령이
내려오시고 높이신 분의 능력이 감싸 거룩하신 분이 태어나
하느님의 아드님이 되실 것이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
를 신앙으로 받아들이셨다.” 아우구스티노(Augustinus) 성
인은 성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태중에 잉태하신 것보다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것을 더욱 위대한 일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이처럼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낳으셨을 뿐만 아니
라, 무엇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셨던 믿음으로 마
리아께서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다. 더 나아가 예수님
의 형제자매가 된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신다. 이런 점에서
‘하느님의 어머니 되심’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를 향하여 걸어가야 할 여정의 모범임을 말해 준다. 그러
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부르며 그분께 기
도드린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 간구해 주실 것
을 마리아께 부탁하는 것이다.

2)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마리아께 ‘동정녀’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은 이미 복음서 안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이사야 예언을 전
하면서 마리아께서 명확하게 ‘동정녀’(Παρθε V voi)이심
을 밝히고 있다.(마태 1,23 참조).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신앙의 내용을 요약한 신경은 성모 마리아께 ‘동정녀’ 라는
칭호를 빠뜨리지 않고 있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
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사도신경). 동정녀로 아이
를 잉태한다는 것은 인간들에게 알지 못할 수 없는 신비였
다. 따라서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이사 7,14)라는 이
사야의 예언은 “하느님께서는 불가능 한 일이 없다.”(루카
1,37)는 하느님의 위업을 드러내는 징표였다. 동정 잉태는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던 만큼 마리아 자신에
게도 그의 약혼자 요셉에게도 하느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제시하셔야 했다. <◆계속>

당연지사(當然之事)라고요?

‘당연지사’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일의 앞뒤 사정을 놓고 판단할 때에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하거나 되리라고 여겨지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자연의 이치에 해당하는 일이나, 부모나 자식 간에, 혹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 해당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늘 당연하다고 해서 항상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잊은 것은 없을까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과 나라가 당연히 다른 모든 민족이나 국가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당연히 자신들을 돌보아주시고 구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주시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늘 당연한 일로 여길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마태오 복음서의 견해를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을 당연히 우선시하는 예수님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견하실 때도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마태 10,5-6)고 말씀하셨고, 가나안 여자와 대화하실 때도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마태 15,26)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루카 복음서의 견해를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선시되는 일이 당연하지 않다는 예수님의 입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의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에 “엘리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아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

에게만 파견되었다.”(루카 4,25-26)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또 엘리아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루카 4,27)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일들을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여길 때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오늘 제1독서에서 시리아 사람 나아만은 엘리아 예언자 덕분에 나병이 치유된 후에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2열왕 5,15)라며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복음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려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나?”(루카 17,18)라고 언급하시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감사할 줄 알았던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시며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듯이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감사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도우심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영준 바오로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저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여 사회의 결속 자체를 붕괴시키는 그러한 법을 통과시키지 마십시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90항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이호미 엘리사벳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해경 레나타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머스 남 2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아영 아가다	남성철 베네딕도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2/4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시도를 바칩시다.

◆ 오창근 베드로 신부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신부님, 환영합니다.♡"

오창근 베드로 신부님(부산교구)께서 2013년 10월11일 백삼위 본당 주임신부로 부임하셨습니다. 하느님 백성인 우리들 구원을 위한 첫째가는 조력자요 위로자인 신부님의 거룩한 품위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앞으로 신부님께서 백삼위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영혼을 돌보며 성무를 잘 집행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오창근 베드로 신부님의 약력은 -

- 사제서품 : 1992년 2월1일(광주가톨릭대학교 졸업)
- 사제서품후 부산교구 중앙성당 보좌신부를 시작으로 방어진 보좌, 화영성당 주임신부, 부산교구 교육국차장, 만덕, 남창, 물금, 수정, 문현성당 주임신부를 지내시고 사하성당 주임신부로 4년동안 계시다 이번에 백삼위본당으로 부임하셨습니다.

◆ 이해인 수녀님과 함께하는 힐링 토크

"삶과 기도의 이야기, 다시 시작하는 기쁨으로"

- 일시 : OC 성 토마스한인천주교회 10월16일(수) 오후 7시
- 강사 : 이해인 블라우디아
(올리베라노 성베네딕도 수도회)
- 주최 : 복미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

◆ 제대회 총회

- 일시 : 10월20일(주일), 낮미사후, 강당
- 대상 : 제대회원 및 후원자들(새후원자 환영합니다.)
- 목적 : 지난 1년간 회계보고, 친교(점심식사 제공)
- 문의 : 윤경옥 실비아 제대회장 ☎(909)557-7490

◆ 백삼위 본당 탁구순위 결정전

- 일시 : 10월20일(주일), 오후 1시
- 장소 : 강당 및 유아실
- 대상 : 탁구를 사랑하시는 모든 교우들
- 문의 : 김용 스테파노 ☎(310)926-2248

◆ 사회복지분과 정부혜택 상담소 운영

- 상담내용 : 오바마건강보험, 저소득층프로그램, 메디케어, 메디칼 건강보험, 정부혜택신청, 장례및 묘지구입방법 등
- 상담일시 : 매달 첫째주일과 둘째주일은 예약없이 상담, 셋째 & 넷째주일은 전화예약자만 상담
- 장소 : 아침미사후(첫,둘째주 강당), 주일미사후 친교장
- 예약전화 및 이메일주소 : 사회복지분과장 이정훈 안젤로 ☎(310)908-8823, funeral1004@yahoo.com

을 추수감사절 합동 야외미사는 본당 '백삼위성당'이 주관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합심하여 행사가 잘 치러지도록 협조합니다.

◆ 성모회 10월 모임

- 일시 : 10월20일 낮미사후 12시 30분 친교장
- 문의 : 권순길 체칠리아 성모회장 ☎(310)365-2183

◆ 안나회 효도관광

- 일시 : 10월29일(화)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출발 : 당일 오전 7시30분 성당 주차장(성당도착 오후6시)
- 대상 : 55세 이상 형제 자매님들(45명 선착순)
- 회비 : 교우 \$20, 부부 또는 가족2인 \$30
- 준비물 : 수영복, 따뜻한 겹옷, 타올
- 신청마감 : 10월22일(화)
- 문의 : 한춘선 루시아 안나회장 ☎(310)738-4387

◆ 남가주성령채신봉사회 '성령체험 수기' 공모합니다.

- 내용 : 남가주성령채신대회 참가후의 성령체험 수기
- 규격 : Letter 용지 5매내외(글자크기 10포인트)
- 마감 : 2014년 3월31일(당선작발표 : 2014년 4월)
- 시상 : \$500(성부상), \$300(성자상), \$200(성령상)
- 접수 및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기도회장 ☎(310)780-0369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0월13일(주일) : 전신자 점심나누기
토런스 서 1/3반(소고기무국)
* 주일학교 수업없음(콜럼버스데이 연휴)
- 10월 20일(주일) : 토런스 남1반(콩나물소고기무국 \$3)
주일학교 : (5학년 핫도그와 나초)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구자운	김광자	김기정	김상근	김선재	김옥보	김옥찬
	김원모	김 은	김종렬	김학겸	노혜숙	모은기	민기남
	민형기	박광자	박근식	박씨니	박영희	박인식	방정복
	석순영	성낙호	송재훈	원건희	윤화경	윤희동	이경수
	이경태	이미경	이민상	이복임	이상석	이숙화	이은록
	이인두	이재철	장영우	전정일	정병훈	정정현	주영석
	주용순	지경수	최기호	현석주	황학수	영희가보라	
	합계 : \$4,275						
성전헌금	구자운	김광자	김기정	김선재	김옥보	김원모	노혜숙
	모은기	민기남	박씨니	박인식	방정복	석순영	성낙호
	원건희	윤화경	윤희동	이경수	이경태	이민상	이복임
	이상석	이숙화	이은록	이재철	장영우	전정일	정정현
	주용순	지경수	최기호	영희가보라			
	합계 : \$1,935						
	주일미사 헌금 : \$2,768						

공지사항

- ◆ 오늘주일(13일) 학생미사는 한국어로 집전합니다.
 - 콜럼버스테이 연휴관계로 어른들이 전례를 맡습니다.
- ◆ 주일학교 고등부 Back to School
 - 날짜 : 10월20일(주일)
 - 시간 : 오전 10시30분~오전 11시(강당)
 - 대상 : 9학년~12학년 학부모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고등부 주임 ☎(310)709-3343
- ◆ 주일학교 양상블 단원 모집
 - 대상 : 주일학교 등록학생으로 6학년 이상
 - 모집분야 : 현악기, 관악기
 - 오디션 : 오늘주일(6일) 낮 12시 2층 교사실
 - 문의 : 크리스티나 진 음악교사 ☎(310)781-0856
- ◆ 주일학교 찬양밴드 음악교사 모집
 - 자격 : 음악에 관심있는 가톨릭 신자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 ◆ 주일학교 중등부 F.I.G.S. Jr. Lock-In
 - 날짜 : 11월8일(금) 오후 6시~9일(토) 오전 9시
 - 장소 : 본당 * 참가비 : 무료
 - 문의 : 스텔라 남 중등부 주임 ☎(310)918-3324

남가주 소식

- ◆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 96주년 기념행사 및 미사
 - 일시 : 오늘 주일(13일) 오후 7시
 - 장소 : LA 성 바실 성당
 - 미사집전 : 박대덕 스테파노 신부
 - 문의 : 김국대 베드로 ☎(213)255-6336
- ◆ 제2기 천주교 아버지학교에 초대합니다.
 - 첫모임 : 오늘 주일(13일) 오후 3시(앞으로 매주일 5주간)
"아버지의 사랑이 가정을 세운다."
 - 장소 : LA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 문의 : 오채민 바오로 ☎(562)505-8070
 - 등록비 : \$120
- ◆ 사우스베이 러닝팀 마라톤 교실 개강 안내
 - 일시 : 10월19일(토) 오전 6시(매주 5주간)
 - 장소 : El Retiro Park(126 Vista Del Parque Torrance, CA 90277)
 - 문의 : 윤희동 안토니외 백삼위 마라톤 동호회장 ☎(213)256-5028
- ◆ 작은 예수회 LA분원 공동체 후원을 위한 '함께 삶의 기쁨'
 - 미사 : 10월19일(셋째토요일) 오전 11시 미사
 - 장소 : LA 작은 예수회 장애시설(1137 Arapahoe St. + 올림픽)
 - 점심나누기 : 낮 12시(구 1일 찻집)
 - 문의 : ☎(213)820-6535 김윤희 소화데레사 수녀

소공동체 10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이태옥 아가다 213-255-6943 10/19(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10/12(토) 오후 7시
	3	박현희 프란체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체스코 592-4739 10/11(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업헤은 도로테아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김충섭 마틴 490-9662 10/19(토) 오후 5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이크리스 아가토 999-5808 10/12(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코 617-1132	장정진 베로니카 617-1132 10/11(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김준 방지거 968-8280 10/18(금) 오후 7시30분
	2	최순옥 스텔라 951-4710	박정람 마르시아 951-4710 10/9(수) 오전 11시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조정선 마리아 945-8204 10/11(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권병연 리디아 404-1607 10/21(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김금자 데레사 804-7645 10/12(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정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송재훈 필립보 377-4219 10/11(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금영도 베드로 910-9943 10/11(금) 오후 7시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김병록 요셉 818-1799 10/11(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박래경 헨리카 617-3568 10/8(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그대 감사의 삶을 살고있는가?

오늘 복음 말씀은 나병으로부터 치유받은 열 사람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치유받은 열 사람 중 두 유형의 사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병이 나았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율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서둘러 길을 떠난 아홉 명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사제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고 병이 나았다는 입증이 급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치유해 주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께 감사드리러 되돌아 온 것입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면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손가락이 아닌 달을 주목한 사람입니다. 토끼를 발견한 한 사냥개가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면 동네 개들도 덩달아 따라갑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 다른 개들은 지치고 왜 따라왔는지 목적의식을 잃고 돌아가지만, 처음에 먹잇감을 발견한 개만이 사냥에 성공합니다. 시선을 먹잇감에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한 주님에게서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형편이 좋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한결같이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깊은 신앙에서 우러나옵니다. 하느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의 노래와 찬양의 기도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사는 환경이 좋은 아니든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헤아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닐까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불평은 쉽게 하지만 감사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한 쪽 창문을 닫으면 다른 쪽 창문을 열어주십니다.

행복의 조건은 사소한 것에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삶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자각하고 하느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낙엽이 어디 가을에만 떨어지던가요? 여름날에도 봄날에도 떨어짐을 생각한다면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수를 만들지 말고,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더 많이 나누지 못해서 아파하며 남은 시간을 가지 있게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적인인 저에게 그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차룡 바오로 신부 / 부산교구 수정마을 성당 주임

가톨릭교회교리해설-Q&A

☞ "믿음, 희망, 사랑이라고 하는 세가지 향주덕은 어떤 것인가?"

비행기에 채우는 연료는 나로호 같은 로켓의 연료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두 연료가 비행체를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힘과 작용은 다릅니다. 중력을 이겨내고 대기권을 뚫어야 할 연료는 훨씬 강력하고 특별해야만 합니다. 인간관계에 평화와 기쁨이 흐르기 위해서 윤리적인 덕이 필요하듯이, 인간과 하느님과의 관계에는 믿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이라는 세가지 향주덕이 필요합니다. 이 향주덕은 윤리적인 덕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불어넣어 주신 덕(德)입니다. 이 세 가지 덕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오늘보다 더 행복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내일은 미래에 속하고 모든 미래는 하느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음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것과 교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것이 장차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덕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맡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믿음뿐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희망은 언제나 피어오릅니다. 희망은 우리 삶의 그 크고 작은 실망과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희망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넣어 주신 행복을 바라는 덕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818항) 행복에 대한 갈망은 우리의 활동에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희망에서 생겨난 힘과 용기로 우리는 이기주의에서 차츰 벗어나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공동체로 일치되어가는 삶은 우리가 세속적인 급류에 휩쓸리지 않게 보호하고 사랑의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희망은 세상의 격한 풍랑속에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영혼의 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희망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일치를 위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게 하는 향주덕입니다. 사랑은 덕의 바탕이므로, 모든 덕들은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룹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완성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요한 15,10)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누리는 풍요로운 영적 자유를 줍니다.

하느님께서 부어 주신 세 가지 향주덕은 우리의 능력 안에 성령께서 머무시도록 하고 그분의 활동을 보증해 주는 천상의 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희망’, ‘사랑’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간직하고 불태워야 할 신앙의 연료이며, 이 세상 선과 악의 싸움터에서 승리를 위해 갖춰야 할 무장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쓰시라.”(1테살 5,8)

◆서울대교구 사목국 연구실 / 가톨릭교회교리서 해설